

태풍 피해 최소화 대응 만전

진안군, 전춘성 군수 주재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판단회의 개최

진안군은 5일 오전 11시 군청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실과소장을 비롯해 읍·면장,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등 재해대책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대응계획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등 태풍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진안군은 5일 오전 11시 군청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전춘성 군수는 "태풍 진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상황전파와 농작물,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법람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신속조치를 강조하며 태풍 '힌남노'에 따른 단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강풍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

하여 실과별로 조형물과 시설물을 고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철거하는 등 태풍 내습 전 사전점검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사전 대비를 실시하고 재산문

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기상상황 및 태풍대피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최훈식 군수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현장 점검

장수군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피해를 대비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5일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산사태 취약지, 과수원 등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방문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5일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산사태 취약지, 과수원 등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방문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은 태풍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재배농가와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최군수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낙과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문했다.

작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태풍상황을 주시하고 사전점검을 강화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장수군은 추석 전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농가당 60만원씩 총 31억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카드

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장수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

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장수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339농가에게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60농가를 제외한 5,079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전년(4,964명) 대비 약 2.3% 증가한 수치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안성낙화놀이.

무주반딧불축제 19만명 방문

환경축제답게 반딧불이 신비탐사 흥행·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사로잡아

3년 만에 개최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4일 폐막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에도 성황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축제이자 환경축제답게 제26회 반딧불축제에 국내·외 관람객 19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반딧불축제 환경 및 생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9일간 8,300 명이 참여해 반딧불이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을 체험했다.

그럼에도 드론쇼와 뮤직라이팅, 그리고 최북미술관·김환태 문학관, 예체 문화관과 등나무운동장, 그리고 한중 투 별빛정원에 설치된 야간 빛 조형물 주변에서는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납대천 청공을 저공 비행한 드론쇼의 경우 드론 300대가 태권도 형상, 사과, 반딧불이 형상, 스키타는 모습, 그리고 머무와인 잔과 와인 붓는 모습, 적상산 입구 등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형상을 10여분간 연출해,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깊은 감명과 환상의 시간을 부여했다. 드론쇼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와 관광객들이 휴대폰 동영상과 사진에 드론쇼 광경을 담은 등 흥행 프로그램 임을 실감케 했다.

생태·환경·문화·야간경관으로 편성된 이번 제26회 반딧불축제에는 개막일인 지난 27일은 개막식장에 3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무주군과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에 실시했던 살다리 재연행사 및 뗏목타기 어린이 환경대전 반딧불 동요제 등 일부 프로그램을 없애는 대신에 드론쇼와 뮤직라이팅쇼 빛의 조형물 전시 관람형 축제로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다.

환인홍 군수는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축제 관계자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부족한 내용들은 대폭 수정하여 내년에는 더욱 품격 있는 축제로 더욱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또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도 대거 축소하고 농·특산물 판매, 안내소 및 상황실 부스 등이 설치된 반딧불 농·특산물과 천원국수 판매장, 납대천일대에서 버스킹 공연으로 대체했음에도 많은 인파들이 운집, 성황을 이뤘다. 다만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내린 비가 욱에 티었다.

지난 1일 오후 8시 등나무운동장에서 펼쳐진 KBS 국악한마당도 국악의 감동을 느낀 2천여 명의 인파가 등나무운동장 관람석에 운집, 출연자들이 부르는 가락의 향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를 응시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인홍 군수는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축제 관계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족한 내용들은 대폭 수정하여 내년에는 더욱 품격 있는 축제로 더욱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해도 한시 상황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 구매하도록 9월 한 달 동안 월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대 30만 원이며 관내 26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한 카드 및 모바일은 판매 대행점과 교향사랑페이앱에서 충전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국제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으로 추석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지류상품권 구매한도는 종전과 같이

구매한도를 상향함에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의 지도·점검도 같이 추진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모든 코로나 확진 군민에 구호물품 배부

진안군은 코로나19로 관내에서 재택치료 중인 전 군민에게 구호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가격리자의 격리 이탈을 방지하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기존에 65세 이상 재택치료자에게만 배부하던 구호물품을 전 군민에게로 확대 배부한다. 대상자는 지난 1일 이후로 확진된 진안군에서 재택 치료 중인 자로 역학조사 전화를 통해 거주지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구호 물품은 보관과 조리가 용이하도록 조미김을 비롯해 즉석밥, 라면, 즉석국 등으로 구성해 관내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배부하여 재택치료자가 안정적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도·진안군, 동자개 치어 22만여 마리 방류

진안군은 5일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내수면 자연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동자개 치어 약 22만여 마리를 용담호 및 읍·면 공공수면 3개소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동자개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이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다. 일명 '빠가사리'로 알려져 있는 동자개는 유속이 완만한 하천의 중·하류에 서식하는 아행성 물고기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어종이다. 또한 2년간 성장하면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어가 소득 증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 및 진안군어업계연합회, 어업계원, 주민 등이 참여해 지켜보고, 방류 수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불법조업 감시 등을 통해 수산자원이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